

2026년 10월 01일 금융 AI/AX 및 보안 동향 데일리 리포트

작성일시: 2026년 10월 01일 06:33

요약

금융권 AI 전환(AX)이 전략 수립 단계를 넘어 본격 실행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KB금융그룹이 AI 에이전트 300여 개를 업무 현장에 투입하며 '생산성 혁신'을 선언했고, JB금융그룹은 베스핀글로벌과 그룹 AX 실행체계 구축에 착수했다. 정책권에서는 배경훈 부총리가 금융·의료 등 현장별 최적 AI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독립모델('독파모')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해외에서는 영란은행 총재가 "규제보다 AI 모델 시험이 우선"이라고 밝혀 실험적 접근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편 AI 에이전트가 저금리 예금의 이타를 유도하는 'AI발 뱅크런' 가능성이 은행권의 새로운 리스크로 부상했다. 보안 측면에서는 병원 개인정보 다크웹 유출, 보이스피싱 피해 급증(3년새 3배), 핀플루언서 채널의 40% 위법 정황 등 위협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스테이블코인 기반 금융 인프라 협력이 민간 부문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주요 동향

1. 정책 및 규제 동향

■ 국산 AI 모델 정책 기조 유지...현장 최적화 강조

- 배경훈 부총리는 "제조·금융·의료·공공서비스와 퍼지컬 AI 등 각각의 현장에서는 비용과 속도, **보안, 전문성**을 고려한 최적의 AI가 필요하다"며 산업·공공의 AX를 외국 모델에만 의존하지 않기 위한 독립 대형모델('독파모')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금융 부문이 국산 AI의 핵심 적용 분야로 명시적으로 언급된 점이 주목된다.
- 영란은행(스코틀랜드) 총재는 "규제보다 먼저 AI 모델 시험이 우선"이라고 밝혀, 중앙은행권에서도 규제 선행보다 샌드박스적 실험 허용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 디지털자산 규제 공백 지속

-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지연과 과세 시행 임박 간의 시차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디지털자산 시장을 금융위 소관 주요 현안으로 지목했다.
- 미국 정부 AI 챗봇 'America.gov'는 가상자산 세금 신고·사기 신고 경로는 안내했으나 최신 법안·규제 정보 제공에 한계를 노출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는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법안(ARMA)을 위원회 통과시키는 등 입법은 진행 중이다.

■ AI 예측모형의 한계 노출

- 정부 세수 예측에서 AI 예측모형이 사실상 무용지물로 평가되며, 공공 부문 AI 활용의 신뢰성 검증 문제가 제기되었다.

2. 금융보안 이슈

■ 개인정보 유출과 신원 도용 급증

- 전남대병원의 환자·직원 개인정보(이름·나이 등)가 다크웹에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해당 정보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에 직접 악용될 수 있어 고수준 보안 체계 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 신원 도용 관련 문의가 사기 자체를 넘어서며, 개인정보 유출 이후 금융·통신 계정 보호 조치의 시급성이 부각되고 있다.

■ 금융사기 위협의 국제화·조직화

- 인터폴의 국제 사기 단속에서 5,811명이 체포되었다. 인터폴의 2026년 글로벌 금융사기 위협 평가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위험도는 '중간'으로 평가되었으나, '로맨스 베이팅' 등 신유형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
-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는 3년새 3배 증가했다. 정부의 보이스피싱 통합 대응단이 피해 발생 건수를 전년 대비 48.8% 감소시킨 것으로 알려졌으나, 관련 '대외비' 문서가 대통령 SNS에 공개되어 보안 관리 논란이 발생했다.
-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사례(1,137명에 263억원)가 확인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경유한 범죄 수익 추적·환급 체계의 실효성이 입증되었다.

** ■ 플랫폼 기반 금융 범죄 규제 공백

- 금감원의 AI 기반 점검 결과 핀플루언서 채널의 40%에서 위법 정황(유료 종목 추천 등 '리딩방' 유인)이 발견되었다. 한국은행 총재 사칭 계정 등 지연 대응으로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핀플루언서 규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KB국민은행은 빚썸 제휴를 통한 고객·예금 증가 효과를 누렸으나, 신규 계좌 대비 사기이용 계좌 비율이 은행권 1위를 기록해 가상자산 채널 연계 금융사기 대응 부담을 떠안았다. 주요 은행의 사기이용 계좌는 1년새 약 1.8배 증가했다.

■ 수사 체계 재편

-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보이스피싱·금융·증권·가상자산 범죄 등 검경 합동수사기구의 운영 방향이 조정되고 있다.

3. 금융권 AI 도입 현황

■ KB금융: 그룹 차원 AX 체질 전환 개시

- KB금융그룹은 AI 에이전트 300여 개를 업무 현장에 투입하며 그룹 전반의 생산성 혁신에 나섰다. 차기 수장으로 낙점된 이재근 부문장은 '글로벌·AI·분권'을 차기 체제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하며 AI 전환을 국내 1위 수성을 넘어 글로벌 도약의 축으로 규정했다.

■ 지방은행·그룹 AX 실행체계 구축

- 베스핀글로벌은 JB금융그룹과 그룹 차원의 AX 실행체계를 구축한다. 공통 표준에 계열사별 업무 특화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지방 금융그룹에서도 AX가 그룹 통합 과제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 은행·증권권 인력·인프라 투자 확대

- 증권사들이 AI·글로벌 인재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채용을 재개했으며, 신한투자증권은 디지털자산 중장기 전략과 전사 AX 전략 담당 경력직 채용에 착수했다.
- 카카오뱅크는 외부 솔루션에 의존하지 않고 데이터 수집부터 설명 가능한 AI(Explainable AI) 모형의 개발·운영까지 내재화하는 차별화 전략을 구사 중이다. '빌린 적 없어 못 빌리는' 신용 공백층 평가에 자체 AI 모형을 활용한다.
- 하나금융그룹은 청라에 새로운 그룹 헤드쿼터를 오픈하며 건물 내 별도 AI 데이터센터 전산실 구축을 추진한다. 침수 대비 주요 설비 지상 배치 등 물리적 보안도 반영했다.
- 토스증권은 원웹 구조의 플랫폼 시너지에 AI 서비스를 결합, 전통 증권사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다.

■ AI 서비스 시장의 확장

- SKT·카카오·KT 컨소시엄은 10월 중 전 국민 대상 무료 AI 서비스 '모두의 AI'를 출시한다. 건강·금융 특화 서비스와 매장·관공서 대상 AI 전화 '대신 걸기' 기능을 제공하며, 금융권 AI 접점이 통신사 주도로도 넓어지고 있다.
- LG유플러스는 AICC(AI 컨택센터)를 금융권 대형 고객센터 중심으로 확대, 올해 순수 AICC 매출 목표를 약 350억 원으로 설정했다. 2030년까지 AICC를 기업 AX 사업의 핵심 성장축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 S2W는 온톨로지 기반 AI 플랫폼 'SAIP'를 고도화하고 제조·유통·금융을 넘어 방산·에너지·통신으로 적용 산업을 확대한다. 보안 기업의 기업 AX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다.

4. 핀테크 및 디지털금융

■ 'AI발 뱅크런' — AI 에이전트가 바꾸는 예금 시장 구조

- AI 에이전트가 고객의 예금을 더 높은 금리 계좌로 자동 이동시킬 경우, 은행의 초저원가성 예금 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되었다. 은행권은 자금 조달 비용 상승 압력에 대비해야 하며, 국내 시장에도 동일한 리스크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AI 에이전트의 금융 중개 기능이 은행 경영 모델의 근간을 흔드는 구조적 변수로 부상했다.

■ 스테이블코인·블록체인 인프라 경쟁 가열

- 비피엠지는 아라코어와 스테이블코인·USDT 기반 국경 간 결제·정산 인프라 협력에 나섰다. 아라코어의 ISN은 은행·결제사업자·디지털자산 인프라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로, 이기종 금융 시스템 간 거래 경로 설정과 정산 관리를 지원한다.
- 넥서쓰는 파셋과 스테이블코인 금융 인프라 협력을 추진한다. AI 에이전트 시대에 블록체인이 금융 인프라로 재조명받는 흐름과 맞물려, 에이전트 간 자동 결제를 지원하는 인프라 경쟁이 시작되었다.
- 카르다노 생태계의 '미드나잇'은 규제 기관과 기관투자자가 요구하는 보안·데이터 주권 기준을 충족하는 네트워크로 주목받고 있다.

■ AI 버블 경고와 시장 변동성

- 세계 3대 사모펀드 KKR은 "AI 붐이 둔화되면 글로벌 금융시장이 휘청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금융시장 전체의 변동성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 국내 증시는 10월 삼성전자·SK하이닉스 실적발표와 한은 금통위를 앞두고 빅테크 AI 투자 규모·HBM 경쟁력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나티시스는 중국의 풍부한 잉여 전력이 중국발 AI 데이터센터 확장의 경쟁력이라고 분석했다.
- ESG 시장은 AI 인프라와 전환금융을 포괄하는 '표적형 ESG'로 재편되고 있다.
- 두산그룹 미국 자회사 하이엑시엄은 AI 데이터센터 착공 붐에 힘입어 나스닥 IPO를 추진한다.

시사점 및 전망

① 금융권 AX, '전략'에서 '실행·검증' 단계로 전환

KB금융의 AI 에이전트 300개 현장 투입과 JB금융의 그룹 AX 실행체계 구축은 국내 금융권 AX가 발표형 전략을 넘어 조직·프로세스에 AI를 내재화하는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향후 관건은 도입 규모가 아니라 **단위 업무당 생산성 개선 효과의 정량적 검증**과 직무 재설계, 거버넌스 정비다. 특히 이재근 체제의 KB가 AI 전환 성과를 지표로 공개할 경우, 타 그룹의 AX 투자 경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② 'AI발 뱅크런' — 예탁금 구조의 구조적 재평가 필요

AI 에이전트의 자동 금리비교·이체 기능은 은행의 핵심 이익원인 저원가 코어 예금을 잠식할 수 있다. 이는 단기 유동성 리스크라기보다 **자금조달 비용의 만성적 상승**이라는 경영 구조 문제다. 은행권은 단기·예금형 자금 경쟁(107조원 CMA 쟁탈전 등)과 별개로, AI 에이전트 시대의 예금 상품 설계와 고객 접점 재정의를 검토해야 한다.

③ 보안 위협의 '융합화'...개인정보 유출→금융사기의 사슬 차단이 핵심

전남대병원 개인정보 다크웹 유출, 신원 도용 문의 급증, 사기이용 계좌 1.8배 증가, 인터폴의 국제 사기 단속(5,811명)은 개별 사건이 아니라 **'정보 유출 → 신원 도용 → 금융 사기'의 위협 사슬**을 구성한다. 금융기관은 계정 보호·이상거래 탐지의 실시간화에 더해, 유출 이후 피해 확산 방지 체계(피해금 추적·환급 등)를 보안 전략에 포함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 경유 피해금 환급(263억 원) 사례는 가상자산 채널이 수사·구제의 협력 인프라로도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④ 규제 공백의 병목: 핀플루언서·디지털자산

금감원 AI 점검에서 핀플루언서 채널의 40%가 위법 정황을 보인 것은 **규제 사각지대가 곧 소비자 피해로 직결됨**을 입증한다. 디지털자산 역시 기본법 지연과 과세 임박 간의 시차가 국감 쟁점화되는 등 제도 정비가 시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플랫폼 기반 금융 활동에 대한 실효적 감독 체계 구축이 4분기 규제 아젠다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⑤ 국산 AI·스테이블코인·AICC — 금융 AI 생태계의 3대 승부처

배경훈 부총리가 금융을 국산 최적 AI의 우선 적용 분야로 명시한 점은 금융권 AX 투자가 **국산 모델 수요 견인**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영란은행의 '시험 우선' 접근은 국내 금융당국의 샌드박스 운영에도 참고가 될 것이다. 또한 SKT·카카오·KT의 '모두의 AI'와 LGU+의 금융권 AICC 확장은 금융사 AI 도입 경로를 '자체 개발 ↔ 외부 플랫폼 제휴'의 선택 문제로 만들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협력(비피엔지·넥써쓰)은 AI 에이전트 간 자동 결제 수요와 결합할 경우 디지털금융의 새로운 레일(rail)로 성장할 수 있다. 다만 KKR의 AI 버블 경고에서 확인되듯, AI 인프라 과잉 투자에 따른 시장 변동성 리스크를 금융권 자산배분과 투자 판단에 상시 반영해야 할 시점이다.

참고 자료

인터넷은행

1. '전통 증권사' 아성 넘보는 토스증권... '고객층 확보' 전략 따라가는... - Naver, 2026년 10월 01일에 액세스
<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609300144>

지방은행

2. 베스핀글로벌, JB금융그룹과 그룹 AX 실행체계 구축... 공통표준에 계열사별 업무 특화 결합 - FA저널 - Google, 2026년 10월 01일에 액세스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a0FVX3lxTFBwbDNmbENqOnZFzVQxbUJkVzIzZC16eEhWsgNJSWpuYTNkdjZiWEdtNm12cjZ6WVlRMjZhOTF6S3AtZHNYNmU2Z>

신한금융

3. 은행 점포·영업시간 감축 속 '저녁에도 문 여는' 특화은행 눈길... KB '6시...' - Naver, 2026년 10월 01일에 액세스
<http://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4961>

정책동향

4. 미드나잇(NIGHT), 카르다노(ADA) 살릴 히든카드?... "수십억 가치 폭발 가..." - Naver, 2026년 10월 01일에 액세스
<http://coinreaders.com/261015>

5. [N2 모닝 경제 브리핑-10월 1일] 증시, 예상 밑돈 PCE에도 장기금리 ... - Naver, 2026년 10월 01일에 액세스
<https://www.news2day.co.kr/article/20260930500210>

6. [N2 포커스] 기본법 늦고 과세는 코앞... 디지털자산 국감 쟁점은 - Naver, 2026년 10월 01일에 액세스
<https://www.news2day.co.kr/article/20261001500003>

7. 10월 증시 운명의 날은...삼전닉스 실적 발표·기준금리 변동에 '주목' - Naver, 2026년 10월 01일에 액세스
<https://www.etoday.co.kr/news/view/2631036>

8. 12개 질문에 답한 America.gov, 가상자산 법안 최신행 한계 - Naver, 2026년 10월 01일에 액세스
<https://www.tokenpost.kr/news/ai/416725>

9. 청년미래청금 2차 신청 10월 7일 시작...우대형은 '연 19.4% 수준 효과' - Naver, 2026년 10월 01일에 액세스
<https://www.cbci.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1316>

10. 티움바이오, SK플라즈마 지분 57% 처분... 213억 현금화 - Naver, 2026년 10월 01일에 액세스
<https://www.dailypharm.com/user/news/342961?REFERER=NP>

11. [출근길 브리핑-10월 1일] " 사과 강력 촉구"·트럼프 "내가 있는 한..." - Naver, 2026년 10월 01일에 액세스
<https://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5222>

12. 한화시스템, 조선소 정리...재무 강화 글썽[더시그널] - Naver, 2026년 10월 01일에 액세스
<http://www.hans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8738>

13. [K금융 리더] KB, AI 에이전트 300개 현장 투입...이재근 '생산성 혁신'... - Naver, 2026년 10월 01일에 액세스
https://www.g-enews.com/view.php?ud=202609281541409543e30fcb1ba8_1

14. 초과세수로 나랏빚부터 갚는다... 이달부터 국고채도 발행 감축 - Naver, 2026년 10월 01일에 액세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58006645608656&mediaCodeNo=257&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ews syndication&utm_con

15. [뉴스 저격] 종목 추천에 돈 받고 '리딩방' 유인... 핀플루언서 뒷북 ... - Naver, 2026년 10월 01일에 액세스
https://www.chosun.com/economy/stock-finance/2026/10/01/RBNTLOHY7ZCZJG6KCTOJEMCMTO/?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16. "빌린 적 없어 못 빌리는 역설"...카카오뱅크가 '신용 빈칸' 읽는 법 - Naver, 2026년 10월 01일에 액세스
<https://www.sidae.com/article/2026082210272147718>

17. 두산그룹 자회사 하이엑시엄, 나스닥 IPO 닷 올렸다 [시그널] - Naver, 2026년 10월 01일에 액세스
<https://www.sedaily.com/article/20096705?ref=naver>

18. 영란은행 총재 "규제보다 먼저 AI 모델 시험이 우선" - Yellow.com - Google, 2026년 10월 01일에 액세스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vAJBVV95cUxNRWMT2NubTZtYmlhcnUybWxObE1ZdmRmMzBjdGwxdm9nOVNRaGdBN3VtZDNIAGR4NjlrUm5PY2s3XzRfVGI>

기타

19. 구글, '제미나이 4 아르칸' 공개...성능 2위 탈환에도 "일반 사용 제한" - Naver, 2026년 10월 01일에 액세스
<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821>
20. [서울데이타랩] 미 증시 혼조 마감...기술주 강세에 나스닥 상승, 다우... - Naver, 2026년 10월 01일에 액세스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26/10/01/20261001500004?wlog_tag3=naver
21. SKT·카카오·KT, 10월 중 '모두의 AI' 첫선...전국민 무료 - Naver, 2026년 10월 01일에 액세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930159700017?input=1195m>
22. [르포] 고객 질문 끝나자 2초 만에 답변...LGU+ 'AI가 바꾼 고객센터' - Naver, 2026년 10월 01일에 액세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930000844>
23. 고금리 제좌로 돈 옮겨준다, 은행들 'AI발 뱅크런' 비상 - Naver, 2026년 10월 01일에 액세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66144>
24. 메트로신문 10월1일자 한줄뉴스 - Naver, 2026년 10월 01일에 액세스
<http://www.metroseoul.co.kr/article/20260930500493>
25. 민주는 '지역민심' 국힘은 '농심0' 잡기 총력 - Naver, 2026년 10월 01일에 액세스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8632>
26. 국제 사기 단속서 5811명 체포...인터폴 관계자, 국가안보 위협 언급 - Naver, 2026년 10월 01일에 액세스
<https://www.tokenpost.kr/news/cryptocurrency/416720>
27. [창간20주년] 과대포장·유류할증료 표기 등 방대한 추적 보도로 법·제... - Naver, 2026년 10월 01일에 액세스
<http://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4973>
28. 비피엠지, 스테이블과 USDT 기반 결제·정산 인프라 협력 - Naver, 2026년 10월 01일에 액세스
<http://www.work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925>
29. [오늘 부동산] 서울 주택 인허가·착공 40% 늘었지만...입주물량 감소 본... - Naver, 2026년 10월 01일에 액세스
<https://www.dailian.co.kr/news/view/1696479/?sc=Naver>
30. "AI 붐 둔화하면 글로벌 금융시장 휘청" 세계 3대 사모펀드 KKR 경고 - v.daum.net - Google, 2026년 10월 01일에 액세스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TOFVX3lxTFAyN2xTRGIwaUhOS2lnYjZVZnkySXBVZER2am9HcHJmUFk2U3pJOC1tYWdUOFhsUHV6OVJvU3BWRmg0VTA5X3JSj>
31. [K금융 리더] KB, AI 에이전트 300개 현장 투입...이재근 '생산성 혁신' 시합대 - 글로벌이코노믹 - Google, 2026년 10월 01일에 액세스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HAFBVV95cUxNUGpFN0NjZ0ZGOTBKWWIJZ1JqNTdVZGpuSWVINGxHaDNCdFVXTWdSbGV4bDY2TS1xY1owVVNzcFl0bzF6YFIV>
32. '표적형 ESG' 시장으로 재편...AI인프라·전환금융 품는다 - 한국경제 - Google, 2026년 10월 01일에 액세스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WkFVX3lxTE91c1RrZEJxTlQwaThVVFIfOTI5aUU3NTRldVFM0VlWc3dySm1VUTFya0o2Tm1pLW04cEk4SEJ5NlFtVTFESbjUwRFRaI>
33. 사기보다 많아진 신원 도용 문의...개인정보 유출 뒤 금융·통신 계정 보호 시급 - 지티티코리아 - Google, 2026년 10월 01일에 액세스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akFVX3lxTE8ya2dLaGZISEMwb3hpNTVycElfS1BTSHhdEIMMUdSTVdjbHhDczJuOE0wN0I0bDFVva2p0cWlPM0xwa00wNGZtRkV>
34. 비트코인 복구 포털 오픈, 90% 이상 피해 지갑 전액 보상 가능성은? (+BTC, Ostium, OLP, 보상) - 민심뉴스 - Google, 2026년 10월 01일에 액세스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bEFVX3lxTFBFZWnHVGlsauUpXUlhiZ08zdE5kMWRWOWlha1hwOzZYd2JfMndWdG5mdnp3R2Rzbnp4V2twVUZxWVFHV2dhS09yZl>
35. [D-BIZ 암호화폐 뉴스] AI 에이전트 시대, 블록체인이 금융 인프라로 뜬다 - 데일리비즈온 - Google, 2026년 10월 01일에 액세스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bEFVX3lxTE5Ja2NDdbU5yRWZUZFcwYVYk2Njh6dV80Uk9PTElTRX05cVdFUHFwMzRkcXdDa29GRmZ1WU0yN2FFWm1JT0VYOVN>
36. 금융분쟁 '편면적 구속력' 결정액 1000만원 가다 · 사건 전말은? - supple.kr - Google, 2026년 10월 01일에 액세스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XEFVX3lxTFBhOnZ0d2ZlY0ZlUzFuaUthN1Y1dTjY3F0cXNjRGJhMnRiaUVVlbVN2VVByeEtLVjZqaDJlcjVkb03d5UjZCNTNldzhqX0>
37. [뉴스 저력] 종목 추천에 돈 받고 '리딩방' 유인... 핀플루언서 뒷북 차단에 피해 커진다 - 조선비즈 - Chosunbiz - Google, 2026년 10월 01일에 액세스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AFBVV95cUx0ekV4YVFaNzJVbXFuTmxlSW0xRGFE0I9ybzJYYzJlVE8wM3ZkeEtFTUgtUGMxOU5aO1UydDVtVE5yOUR3TTFnN>
38. 고금리 제좌로 돈 옮겨준다, 은행들 'AI발 뱅크런' 비상 - 미주중앙일보 - Google, 2026년 10월 01일에 액세스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YkFVX3lxTE5mVEdIRk5HNEQtaG5PUUYwX3RVcGpxX0Vud0p6S25TenpkZTctMXhjeVVCYWNHRmhDZkdZbXhERzJrNnJscq4bHf>
39. 10월 증시 운명의 날은...삼전닉스 실적 발표 · 기준금리 변동에 '주목' - v.daum.net - Google, 2026년 10월 01일에 액세스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TOFVX3lxTFAwbk1XdFpZa3dod25uemOxeVlLDW5BdFRYLS1rdEpRX0M4eGJXMkdEcjh0TnRpRHZLSFJKamY4TFpGZThsNEZ3Tm8>
40. [K금융 리더] "국내 넘어 글로벌 금융그룹 도약"... 이재근, '글로벌·AI·분권' KB 청사진 - 글로벌이코노믹 - Google, 2026년 10월 01일에 액세스

[/CBMihAFBVV95cUxNNUowa1FJWnpkVzRaU2xOVEVtQWttaTRfY3U1MVphSndwbjRLZy1lSGZRd1Rmc19heVZmOlC2NlBNeFdXeDk1Z1l](#)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

[/CBMickFVX3lxTFBzdGpzNHMzSktDeDIc2FyNDgyZ3RIaWhodmdLSWVTZUlsMVBNbUZrU1Fhbmg1VkFKc3J3b0NaVlM1ZEt2WXpfYW](#)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

[/CBMiT0FVX3lxTE5lZHluNDBwdTBPNjNBeUJOWFFBbXB1V25KZmRxaG1PLWVWM3pWZS13dE5lOG5FOTNvTDJZdHNhNThqTTFhYW](#)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

[/CBMiekFVX3lxTFA5Vk9NVUtIRllQZ3ZzO1pNU2NTEhUlUlowMWpiX2hnZUdUWllak1pYWR0QlFWbnhpSnd6bVxYlo2bG9yX1U4dlQtaI](#)

피해 3년새 3배↑ - 뉴스웍스 - Google, 2026년 10월 01일에 액세스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

[/CBMib0FVX3lxTE01bVhBUFZiRDE4WFFRNTUxalV6WDJEdmFVZHJ0cVYyTXkta0ljVVIremV4REJ4OXppcEN0eno0eExCdTNTNy1YenJ.](#)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

[/CBMiRkFVX3lxTFBKNfICZehFSDY3QVp6SjJtMDdIMTV0V1JfRWltV2lGc0tsLXFUYzJzcC0zVG14czg1SWl4Wk1XdUtEWHNjdVE?oc=5](#)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

[/CBMibEFVX3lxTE01dlRWXlFd21Ec1hQenQ1M2lLYWpSanh0UmY1alVXV2FBV2ktTkx6RERoN0l3THdHNC01RFdfTTZXcWVZdmQzTktJ](#)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609301054354410880>

<https://www.sedaily.com/article/20096852?ref=naver>

<https://www.cbci.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1225>

https://www.g-enews.com/view.php?ud=202609281452093850e30fcb1ba8_1

<https://www.cbci.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1312>

<https://www.seoul.co.kr/news/economy/finance/2026/10/01/20261001031005?wlog tag3=naver>

<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639039>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930000688>

<https://www.yna.co.kr/view/AKR202609300884000008?input=1195m>

<https://www.ziksir.com/news/articleView.html?idxno=147868>

<https://www.g-enews.com/view.php?ud=2026093015084255700c8c1c064d1>

<https://magazine.hankyung.com/money/article/202609171027c>

<http://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4966>

60. 증권사 인력 확충 본격화...AI·글로벌 인재 확보 '속도' - 서울파이낸스 - Google, 2026년 10월 01일에 액세스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akFVX3lxTE1lbFpjWC1tZHU5V2ZXanFzSUN00DBsSkJkYlAzWFp1RzNDMG9Ddm1jbGZWNnIHT2IxRUUVWYzBkZWWhWUWI5U1Rh>

금융보안

61. S2W, 온톨로지 기반 'SAIP' 고도화...기업AX 중심 비보안 사업 확대 - Naver, 2026년 10월 01일에 액세스
<https://www.sedaily.com/article/20096744?ref=naver>

62. "독파모 계속된다"... 중단설 끊은 배경훈 - Naver, 2026년 10월 01일에 액세스
<https://www.mt.co.kr/tech/2026/10/01/2026093019473640928>

63. 지뢰·포로 송환·이태원 수사·초과세수... 오늘 아침 짚어볼 4가지 - Naver, 2026년 10월 01일에 액세스
<https://www.segye.com/newsView/20260930518188?OutUrl=naver>

64. 배경훈 부총리 "독파모와 프린티어 AI 함께 간다" - Naver, 2026년 10월 01일에 액세스
<https://www.segye.com/newsView/20260930516519?OutUrl=naver>

65. [사사건건] 개정 형소법 직전 경찰 수사 지휘관 650명 소집 - Naver, 2026년 10월 01일에 액세스
<https://www.segye.com/newsView/20260930520812?OutUrl=naver>

66. [단독] 환자·직원 개인정보 다크웹에 유출된 '전남대병원'...이름·나이... - Naver, 2026년 10월 01일에 액세스
<https://news.jtbc.co.kr/article/NB12320805?influxDiv=NAVER>

67. "제가 졌습니다"...한동훈, 이 대통령 SNS 공유하며 조롱 섞인 반격 - Naver, 2026년 10월 01일에 액세스
<https://www.fnnews.com/news/202609301916069921>

68. , SNS에 '대외비' 보고서 공개 논란 - Naver, 2026년 10월 01일에 액세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930/134764227/2>

69. 보이스피싱-증권범죄 등 검경 합수부도 문답아 - Naver, 2026년 10월 01일에 액세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1001/134764299/2>

70. 보이스피싱-증권범죄 등 검경 합수부도 문답아 - 동아일보 - Google, 2026년 10월 01일에 액세스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dkFVX3lxTE9VUXJjaUM3NUtWUVVfWjUzME00MW5SMVVOcEF3c1puekhNTks4ZVJ2ci13VHZRZDIHWndPMnZfNUZKakVReTZJ>

71. "피싱으로 수천만원 뜯겨 집까지 팔아" 포기한 내 돈 코인거래소에 있었다...1137명에 263억원 환급 - news.jtbc.co.kr - Google, 2026년 10월 01일에 액세스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UkFVX3lxTE53eXN3SU04WXc1b213YXNzX1lyMGQzemV4aEloOmtkWUICb19ZVkvZc3Ut0zJ3cUVUc25pZUNmV1dEaTM0dnRZVF>

본 리포트는 AI가 자동 생성한 것으로,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